



즉시 배포용: 2023년 2월 2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이스트 팔레스타인의 유독 열차 탈선 사건 발생 후, 화물 열차 유해물질 재난을 막기 위한 화물 철도 산업, 의회, 연방 수준의 규제 도입 촉구

이러한 조치에는 유해 물질용 안전 차량 신속 도입 등이 포함

브레이크 규제 및 시스템 현대화로 충돌 위험 방지

응급 대응팀에 주를 지나는 위험 물질 차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통보

화물 차량 유해물질 사태에 대한 훈련 및 대응 계획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자금 지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하이오 이스트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유해물질 적재 철도 탈선 사건으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은 가운데, 화물 철도 유해 물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 철도 산업, 의회, 연방 수준 규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주지사가 개요를 공개한 종합적 조치는 유해물질 운송 산업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한편, 연방 관리를 개선하여 뉴욕주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의 건강과 안전은 제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오하이오 이스트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는 예방적 규제 및 비상 대응의 적절한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뉴욕은 화물 철도 유해물질 대비 및 대응 노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해 물질의 운송 방식을 현대화하고 유해물질 대비 계획 및 대응 자원을 강화하여 미래의 비상 사태를 막을 것을 화물 철도 산업, 의회, 연방 규제 기관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Hochul 주지사는 화물 철도 산업, 의회, 연방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규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 의회에서 의무화한 2029년 기한에 앞서 유독 물질 전용 안전 탱크 열차(DOT 117's)의 신속한 단계별 도입.
- 열차 탈선 위험 예방을 위한 전자 공압 브레이크(electronically controlled pneumatic brakes, ECP) 사용 강화 및 브레이크 규제 현대화.
- 주 전역을 지나는 위험 물질 차량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뉴욕주 비상 대응팀에 사전 통보.

- 유해 물질 대비 및 대응 계획에 대한 주정부 및 지역 보조금 확충.

Basil Seggos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 주민들은 비상 사태가 발생할 때 뉴욕주가 대응할 준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지사의 촉구는 연방 정부로 하여금 철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우리 주민을 보호하고 전국이 강력한 철도 운송 감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DEC는 연방, 주, 지방 파트너와 협력하여 전국을 선도하는 책임 역량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Jackie Bray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의 안전 보장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주정부는 유해물질 및 재난 대응에 대한 숙련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어 이런 종류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DHSES 및 우리 기관 파트너가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연방 공무원 및 운송 산업 역시 추가적 조치를 통해 대비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추가적인 철도 유해물질 사고를 겪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Marie Therese Dominguez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DOT)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모든 운송 방식, 특히 철도 안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YSDOT는 적극적으로 연방, 주, 산업 파트너와 협력하여 여기 뉴욕은 물론 전국에서 화물 철도 장비 및 운영에 대한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며, 종합적인 조정 노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또 다른 유해물질 사고를 막고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화물 철도 위험물질 대비 및 대응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3년 Lac-Megantic 충돌 사고 발생 후, 뉴욕주는 특히 크루드 오일에 집중하여 화물 철도 유해물질 사고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계획 및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환경보존부가 주도하는 다수의 기관이 참여한 노력을 통하여 뉴욕주는 [지리 대응 계획\(Geographic Response Plans, GRPs\)](#)을 수립하여 비상 사태 발생 시 지역, 카운티, 주, 연방, 산업 대응의 지침으로 삼았으며, 이는 전국의 모범 사례입니다. 뉴욕이 화물 철도 유해 물질 대비에 대한 노력을 주도하는 가운데, 연방 정부 및 철도 산업은 오하이오에서 발생한 사건과 같은 비상사태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